

▣▣ 업계동정 ▣▣

啓洋電機(株), 전동공구 중동 진출 성공

啓洋電機(株)(代表:李相翊)는 '77년 전동 공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후 '82년 국내 최초로 전동공구를 해외에 수출해 '전동공구 처녀수출상'을 받았다. '88년에는 전동공구 최대수출국인 일본에 수출을 시작해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89년 500만불 탑, '90년에는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자체 개발한 자동차용 D.C 모터를 세계적으로 검사가 까다로운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GM사에 전량 수출해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모터의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을 뚫기 위해 지난 '96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질기준인 QS 9000을 획득했다. 계양전기는 2,94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93.8%나 신장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계양전기의 수출대상지역은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등 전세계에 이르고 있다. 계양

전기의 원래 주력 수출시장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이었다. 그러나 '97년부터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해 미개척지역인 중동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시리아를 중심으로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지도가 없고 중저가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품질개선과 신속한 A/S 부품공급, 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판매확대에 나서고 있다.

계양전기는 최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개발에서는 품질 제일주의와 고품질을 목표로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전동공구의 국산화와 고품질 제품개발에 기여해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 발전시켰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株)瑞日機電, '감전·이상전류 방지' 자동전원차단기 개발

(株)瑞日機電(代表:李永鎬)이 중국에 현지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신제품

개발을 토대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압기중차단기(ACB)와 비상전원절체개폐기(ATS) 전문생산 업체인 서일기전은 일·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현지 천진하동광화개관창(天津河東光華開關廠)과 합작형태로 내년에 조립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李사장은 이와관련 『중국측이 연간 300만 달러 정도의 부품공급을 요구해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지 전기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출 이점이 높다고 판단, 내년에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기전은 또 감전 등에 따른 쇼크위험과 이상전압에 따른 등기구 등의 파괴현상 등을 방지해 주는 고효율·고성능의 ACB와 ATS를 각각 개발, 특허신청과 함께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만 베트남 케냐 등 세계 각국의 23개 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는 최근 페루의 파메탈사에 연간 최대 50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고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 7개국 바이어들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어 내년부터는 수출규모가 대폭증가할 전망이다.

大韓電線(株), 차세대 광섬유 개발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역을 1백nm(1nm=10억분의 1m)이상 늘린 차세대 광섬유가 나왔다.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濤)은 특정 파장대의 빛을 정보전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OH마이너스 이온을 제거한 새로운 광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섬유는 이제까지 1천2백80~1천3백25nm, 1천5백30~1천6백20nm 파장대의 빛을 정보전송용으로 사용해 왔다. 빛의 손실(감쇄)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1천3백25~1천5백30nm의 빛은 OH마이너스이온 때문에 정보전송용으로 쓰지 못했다. 빛의 감

쇄수준이 km당 0.19~0.36dB 수준이어야 정보전송에 문제가 없는데 이 파장대는 OH마이너스이온의 영향을 받아 빛의 감쇄수준이 1dB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OH마이너스이온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기존 광섬유에서는 사용할 수 없던 파장대의 빛을 정보전송용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동사는 이 광섬유가 WDM(파장분할다중전송)의 상용화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WDM은 한가닥의 광섬유에 여러 파장대의 빛을 동시에 보내는 것. 대역폭을 0.8nm까지 쪼개 빛을 보낸다. 대한전선이 개발한 광섬유를 사

용하면 현재의 광섬유보다 추가로 쓸 수 있는 빛의 범위가 1백nm 늘어 정보전송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

대한전선은 해저용등 장거리에 설치되는 광

섬유의 경우 빛의 분산도(신호가 늘어지는 것)가 커져 속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 분산도까지 낮은 고밀도 WDM용 광섬유도 개발했다.

平一産業(株), 120만弗 외자 유치

플리머 애자 전문생산업체인 平一産業(株) (代表: 金鳳周)이 12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평일산업은 프랭크 알바네스(Flank J. Albanese) 제임스 홀컴(James Holcobmb) 등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 자기진단형 자동차단기사업에 진출키로 했다.

평일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한 외국인 자금은 총 120만달러. 미국인 프랭크 알바네스와 제임스 홀컴이 현물출자 12만5,000달러, 현금출자 22만5,000달러 등 각각 35만달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김주학씨가 50만달러를 투자했다.

평일산업은 투자유치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 120만달러와 金대표의 자금 20만달러를 합쳐 자본금 140만달러 규모의 「P&A POWER PRODUCTS사를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P&A POWER PRODUCTS사는 미국 테네시주의 전력기기 전문업체인 ABB사가 생산하던 자기진단형 자동차단기의 생산라인을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공장으로 이전시켜 내년 상반기중 본격 가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민호(崔敏鎬) 평일산업 이사는 「현재 생산라인은 해체작업중에 있으며, 이달말께 이전을 마치고 시험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3월께는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진단형 자동차단기는 변압기의 과부하를 감지, 경보해주는 시스템이다.

P&A POWER PRODUCTS사는 월 3,000개 정도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생산제품의 90%를 수출, 연간 3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